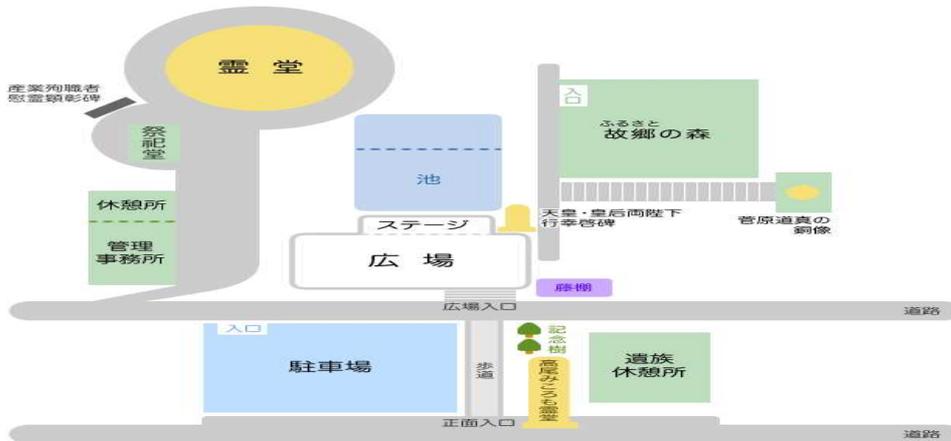


“일본 및 싱가포르 산업재해 사망보상체계 조사 및 유관기관 방문”에 관한 출장보고서

■ 출 장 자	김재호 부연구위원, 남효정 연구원
■ 출 장 지	일본 도쿄 및 싱가포르
■ 출 장 기 간	2014. 10. 6(월) ~ 10. 10(금)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산업재해사망자 납골당 고미위령당 방문 및 유관기관(봉찬회) 방문 · 싱가포르 산업재해 보상체계 검토를 위한 노동부 방문
■ 세부 활동사항	
<p>1. 고미위령당 방문</p> <p>○ 날 짜: 2014. 10. 6 (월)</p> <p>○ 장 소: 일본 동경시 소재 東京都八王子市狹間町 1992</p> <p>○ 참 석 자: 원외: 장민영 현지가이드, 渡邊 眞知子관리사무소장 원내: 김재호 부연구위원, 남효정 연구원</p> <p>○ 내 용:</p> <p>1. 고미위령당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東京都八王子市狹間町 1992 - 홈페이지: http://rofuku.go.jp - 전체면적: 52,962m² 건설면적: 803m² 정원면적: 3,296m² -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 45m - 내부시설: 1층 홀, 2층 휴게실, 3층 테라스, 4~8층 납골실, 9층 제사실 10층 전망실 11층배전 - 납골실에서는 산업 순직들의 유골을 무료로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유골도 유료로 보관하고 있음. 제사실에서는 유족들의 위령을 위한 방으로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에 따라 시설을 달리하고 있음. 불교신자를 위해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 불단이 있고, 기독교신자들을 위해 제단이 있음. 배전에는 영당의 핵심영역으로 산업 순직자의 영위가 봉안되어 있고 1947년 7월 산재 보험법 시행 이후의 순직자의 이름을 적은 「영부」가 담겨 있음. 항상 켜져있는 영원한 등불은 "영"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 배전의 뒷면에는 천지상, 햇빛상, 달빛상이 안치된 정진(靜進), 서광(曙光)그림이 걸려 있음. - 건립 40년이상, 전체 시설은 관리사무소, 연못, 정원, 영당, 기념비 등이 있음 - 영당 안내도(아래 그림) 	



2. 고미위령당 설립목적 및 연혁

- 「산업순직자영당봉찬위원회」는 산업 순직자의 영을 위령경앙(敬仰)하고 그 공적을 널리 현창하는 정신고양하려는 산업 순직자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맞게 산업 순직자 영당의 봉찬(奉贊)활동을 실시하고, 산업 순직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납골, 제사에 관한 상담을 목적으로 함
- 영당의 운영을 위해 1975년 8월에 "다카오미코로모영당봉찬회"로 활동을 시작, 이후 1993년에 노동대신(현 후생노동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산업순직자영당봉찬회」로 유족과 관계 기업·단체의 협력을 얻어 ‘위령경앙사업(慰靈敬仰事業)’과 ‘환경미화 등의 봉찬활동을 해왔음. 2012년 4월에는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새롭게 「공익재단법인 산업순직자영당봉찬회」로 발족함.

3. 기타사항

- 영당관리는 근로자복지기강이라는 기구에서 외부위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재정 및 운영은 상부기관인 봉찬회와 기강에서 진행함.
- 사무소에는 청소, 관리, 제사일자 관리 등을 위한 직원 10명이 배치되어있음.
- 산업재해 순직자는 무료, 일반근로자는 유료로 안장됨.
- 위령식은 기후(태풍) 영향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향후 재거행 여부는 미정임
- 고미위령당의 시사점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이용료는 무료이나, 회원제도를 두어 이윤을 남기는 수익구조임. 1년에 한번 합사하는 봉안형태이므로, 부지규모 대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있음.

2. 다마영원 방문

- o 날 짜: 2014. 10. 7 (화)
- o 장 소: 도쿄도내 다마영원 (多磨靈園)
- o 참 석 자: 원외: 장민영 현지가이드
원내: 김재호 부연구위원, 남효정 연구원
- o 내 용:

- 동경도내에 있는 공원묘지로 총 부지 130m²
- 별도의 사진촬영은 불가하여, 기관 라운딩 위주로 보았음.
- 미타마 납골당: 화강암 건물로 실내 체육관과 유사하게 보임
- 1993년 완성, 높이 20m, 최대직경이 61m, 바닥면적은 1066평.
- 내부에 5,435개의 금고식 납골함이 있음(최대 2만1740기 수용 가능)
- 총공사비 47억엔으로, 현재 포화상태임.
- 정치가, 사상가, 여성운동가, 군인, 그리스도인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일본 근현대사의 주역들 중 다수가 안치되어 있음.
- 1923년 설립 당시는 '다마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 다마영원 건립의 배경은 배불정책의 일환으로, 근대적 권력에 의해 강제된 일련의 묘지정책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두하는 묘지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진행됨.
- 도쿄시 묘지관련 행정은 공원과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음. 묘지사업과 공원사업을 함께 처리하고, 정원묘지의 개념을 처음 도입함.
- 기본적으로 나무와 잔디, 꽃 등으로 우거진 커다란 공원형태를 가진 묘지로 실제 묘지를 이용하는 면적은 전체의 30%정도임.

3. 봉찬회 방문

- o 날 짜: 2014. 10. 8(수)
- o 장 소: 東京都千代田凶神田順田町2丁目6番地
- o 참 석 자: 원외: 二厚利治 상무이사, 龜澤田子 사무국장
- 원내: 김재호 부연구위원, 남효정 연구원
- o 내 용:

1. 봉찬회 개요

- 정식명칭은 公益財團法人産業殉職者靈堂奉贊會
- 영당 건립당시 국고보조금 있었으나, 비율은 알 수 없음.
- 관리사무소는 정원관리, 대리참배 등을 함.
- 건립당시,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부기관인 근로자복지기강에서 해결함.
- 기강으로부터의 운영보조금 등 지원은 없음.
- 재원은 기업이나, 유족회비(기부금)로 운영함

2. 봉찬회 역할

- 위령경양사업: 봄의 위령제, 여름축제, 10월 합사위령식
- 환경정비사업: 각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 관리, 40주년 기념식수 관리
- 유족지원사업: 유족이 멀리 사는 경우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참배가 힘들 경우, 무료로 대리참배 진행, 제사용구 알선 및 상담활동 등
- 홍보사업: 봉찬회회보 발간을 통해 회원간 교류
- 연회비: 연간기준 순직참조회원 1인당 2,000엔, 일반회원 5,000엔, 법인회원 20,000엔 이상, 회원증 발급 회원은 영당무료 참배, 숙박시설 우대 요금 등의 혜택이 있음
- 봉찬회 기반정비: 납골당 이용 계약자, 향만 재해 방지 관계자 등에 대한 가입 적극 요청

- 향후 보사연과 후생노동성 또는 근로자복지기강 등의 단체와 MOU를 체결 제안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위해).

4.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방문

- o 날 짜: 2014. 10. 9(목)
- o 장 소: Ministry of Manpower, 1500 bendemeer Road #03-02 ministry of manpower service center Singapore 339946
- o 참 석 자: 원외: Woon cheng peng(deputy director), Wilbur Oh(senior assistant director)
원내: 김재호 부연구위원, 남효정 연구원
- o 내 용: -

○ 산재보험 전반에 대한 과정 설명

- 현재로서는 정부에 의한 보험회계형식의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사업주는 육체 근로자 및 월소득이 1,6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부여됨. 재해자와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돕기위해 직장상해보상법(WICA) 마련
- The work injury compensation act(WICA)이 법적 근거임.
- 봉급수준에 상관없이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들은 해당되며, 자영업자나 가정고용인 및 몇몇 정부청사 소속 직원은 해당되지 않음
- 3종류의 보상체계: 의료휴가, 의료비용, 영구불능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 의료휴가(병가): 최대 14일간 외래환자 진료비용 지급, 입원기간은 최대 60일. 이외 기간은 사고 다음 해의 2/3에 해당하는 최대 월급 지급
 - 의료비용: 부상으로 치료받은 비용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치료기간 비용, 사고발생 고용주당 \$25,000('12.6.1 이전), \$30,000('12.6.1 이후)
 - 영구불능, 사망 일시금은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보상
- 민족, 인종, 종교가 다양한 국가로 장사비 미지급
- 앞으로도 장사비나 납골당 건립에 관한 계획은 없음
- 사망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유족연금 없음

○ 산재사망과 관련한 보상

- 2012년 6월 1일 이전 최소 \$47,000(약 3,910만원) ~ 최대 \$140,000(약 1억 1,649만원)
- 2012년 6월 1일 이후 최소 \$57,000(약 4,743만원) ~ 최대 \$170,000(약 1억 4,145만원)
- 보상금액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월평균임금X연령요인
- 연령요인은 14세부터 66세 이상까지 영구적불능(PI)와 사망으로 구분지어 세분화되어 있음.
- 2015년 MOM과 한국의 안전보건공단(KOSHA)간 국제행사가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람